

# 광주시 부채 2조700억… 시민 1인당 빚 147만 7천원

시의회 2024 회계연도 보고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장기화 등 영향  
채무 비율, 23.1% 특·광역시 최고…재정자립도 39.8% 24년만에 30%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인당 147만 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시의회가 작성한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의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은 23.1%로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등과 비교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한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경고등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 주의 단계'에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시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195억원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이자 비용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면 1만2000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수며, 대당 2억5000만원인 저상버스를 480대 도입하거나 시립도서관 4개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올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2001년 IMF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 역시 58.3%로 하락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하며 시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자금을 빌려 쓰는 광주시의 내부거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광주시는 기금 470억원, 특별회계 1560억원 등 총 2030억원을 융자받아 사용하고

있어, 민선 8기 시작 시기인 2022년(107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증가와 7000억원 규모의 시비 부담, Y-프로젝트 추진 시 재정 부담 우려 등이 있어, 향후 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광주시가 부채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도시철도2호선 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지방채 발행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또 광주시의 세출에 비해 세입이 작아 채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코로나 당시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시 재원을 미리 사용했고 이후 시 재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장기화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기 완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을 위한 추가비용도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예산담당자는 "코로나 이후 금융권 이자가 5%까지 올랐으나 3%대로 조정해 지난해에만 140여억원의 이자를 부담을 줄였다"면서 "지방채 발행도 저금리로 변경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지방채 원금상환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공시설물, 안전이 최우선

제35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9일 오전 광주 서구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광주시안전모니터 봉사단원들이 유스퀘어 주변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의료비 감면·통역서비스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진료비 30% 할인·다음달부터 9개 언어 통역

전남도가 의료비 감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안심병원'을 운영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6월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운영한다.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진료비 30%를 감면한다. 또 전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연계해 의료 통역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18.5%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그 숫자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크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통역 서비스는 한국어를 포함한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6개 언어로, 7월부터는 태국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 9개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전

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고, 외국인 환자 통·번역 지원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진료비 감면 여부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심병원 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특위 구성

행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성공 개최 앞장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이광일(민주·여수1)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행정·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됐다. 특위가 구성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조직위원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지원,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홍보 및 전략 마련 등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광일 의원은 "현재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박람회 개최가 임박했음에도 예산 부족 등 한계에 직면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및 행정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박람회는 전남의 섬 진흥 성공 모델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후방 산업 육성 지원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26년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6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와 58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생산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이주 여성 산후 돌보미 찾아요”

광주시, 16~20일 신청 접수…다문화가정 산후조리 서비스

광주시가 출산을 한 다문화가정을 돌봐줄 이주 여성을 모집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16일부터 20일까지 다문화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육 돌봄을 지원할 '2025년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결혼 이주 산모들에게는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여성에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정보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보미를 하는 이주여성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한국 거주 3년 이상,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경과,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결혼 이주여성고 고려인여성 10명이다.

선발된 이주여성은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산모돌보미 양성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산모돌보미 활동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시간으로, 한 가정당 70시간씩이다. 돌보미 시급은 1만3000원(식비 포함)으로 교통비

가 지급된다. 신생아 목욕,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세탁물 등 정결 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와 산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정신적 안정 지원을 제공하면 된다. 신청 서류 접수는 광주북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북구가족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산모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산모와 고려인여성 산모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모집' 신청을 하면 무료로 산모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베트남 등 6개국 출신 26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202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N

K

2025. 6. 18<sup>WED</sup> – 6. 20<sup>FRI</sup>

CKL 스테이지